

# 젓소 송아지 수매사업의 성과

이 상 수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음매, 음매... 여의도에서, 과천에서...

지난 6~7월경 도심에서 때아닌 송아지 울음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아파 했는가?

IMF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우유와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공급과잉 상황을 보임에 따라 분유 재고는 사상유래없는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산지 소값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젓소 송아지의 경우 판로마저 막혀 낙농가들이 도심의 한 북판에 송아지를 내다 버린 것이다.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소비를 늘리든지 생산을 감축하든지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조기 안정을 위해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생산감축차원의 일환으로 축협을 통해 젓소송아지를 마리당 10만원씩 매입하는 정책을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만6천t이상 쌓여있던 분유재고가 1만톤 수준으로 감소되고 산지소값도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젓소송아지가격은 초유떼기 11만원, 분유떼기는 18만원 수준까지 회복하므로써 낙농산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점만을 지적 기사화하고 있어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업추진기간동안 수매한 송아지는 총 17,695두로써 그동안 9,291두가 폐사되고 3,717두는 무상제공하여 도축후 불우시설에 기탁하는 등으로 처리하여 10월7일 현재 4,687두만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사육되고 있는 송아지도 육골증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10월 중순까지는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서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3가지이다.

첫째, 왜 이렇게 폐사율이 높은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후 사업을 추진했다라면 이와 같이 많은 두수가 폐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둘째, 정부에서 마리당 10만원씩 돈을 주고 산 송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셋째, 생산감축을 위한 시책이라면 외국에 수출하면 될 것 아닌가? 등이다. 그렇다면 국민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정부에서 그와 같이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의 본질은 우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낙농육우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일시에 수매하여 시장에서 완전 격리를 시켜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폐사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농가들로부터 수매한 관계로 질병유입을 차단할 수가 없었고, 많은 두수를 수매하여 밀집사육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추진 기간이 하절기와 겹쳐 질병 발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농가에서는 초유도 제대로 급여하지 않고 수매에 응하는 등 농가에서 출하한 송아지의 건강상태도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도 폐사율이 높은 원인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다면 개체별 사육시설을 사전에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면수궁이 가는 면도 없지 않으나 IMF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우리국민 어느 누구도 예측치 못했으며, 사전준비를

**큰소는 여러차례 수매한 경험이 있지만 송아지는 유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준비가 소홀했던 면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부실도 있었으리라 생각도 되지만 밤낮 구별없이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분유재고가 감소되고 소값이 올라 낙농육우산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위해서는 송아지 사육 케이지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을 하다보면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정 투자를 해야만 하는 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매송아지를 무상 제공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초 정부는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매한 송아지는 2~3개월 사육후 국내 육류 수급동향이나 우유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축 처리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따라 수매개시와 함께 처리방안수립을 위해 1차 시험도축을 하였으나 골격 및 근육발달이 미약하고 송아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어 식육이나 가공육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도축시 상품가치는 지육 마리당 13~28천원에 불과 1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결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협을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수매송아지 처리와 관련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생산자단체의 건의중 일부를 수용하여 수매조합장 책임하에 도축 등으로 무상제공토록 하는 등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재량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잔혹한 도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중지로 못하고 전량 수출을 위해 외국수입업자 입회아래 2차 시험도축을 실시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경남 하동소재 육골즙제조업체인 (주)코리안헬트에서 송아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운송비와 도축비 등 제비용은 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생산 감축을 위한 사업 목적 달성과 결손 최소화를 위해 육골즙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처리토록 조치한 것이며 10월중순까지는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출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같이 외국수입업자 입회아래 실시한 시험도축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가지 우리가 유의해야할 사항은 생산감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WTO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시 국제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젓소송아지 수매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차관님을 비롯한 윗분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담당사무관으로써 죄송한 마음도 많지만 배운것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언제 송아지를 수매해 본 경험이 있는가? 큰소는 여러차례 수매한 경험이 있지만 송아지는 유사 이래 처음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준비가 소홀했던 면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부실도 있었으리라 생각도 되지만 밤낮 구별없이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분유재고가 감소되고 소값이 올라 낙농육우산업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다만, 한가지 무릇 언론의 생명이 진실보다와 공정성에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우리사회에서는 지금 한창 「제2의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잘잘못을 가려서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건국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IMF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 ☹

(필자연락처 : 02-504-9434)